

### 통합 강원대 출범... '거점국립대'로 도약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국내 최대수준 국공립대학으로 재편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통합해 통합 강원대학교로 새 출범했다. 지역 분산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은 하나로 묶어 강원 전역을 아우르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 강원대가 학생 3만여 명, 교수 1400여 명 규모로 국내 최대 수준의 국공립대학으로 재편됐다. 이번 통합은 강원 지역의 넓은 권역과 지역 간 격차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 '강원 1도 1국립대' 모델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글로벌대학에 선정됐다.

통합 강원대는 춘천·강릉·삼척·원주 등 강원 지역 4개 주요 도시에 위치한 캠퍼스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각 캠퍼스의 기능

을 분산배치하되 공유·연합·통합 체계를 강화해 강원 전역을 하나의 고등교육 혁신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캠퍼스별로 보면 춘천은 교육·연구 거점으로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 인재양성에 나선다. 강릉은 지·학·연 협력 거점으로 신소재, 해양바이오·천연물, 관광 및 동·하계 스포츠 분야를 맡는다. 삼척은 지·산·학 협력 거점으로 액화수소, 에이징테크, 재난방재 분야를, 원주는 산·학 협력 거점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이(E)-모빌리티, 스마트 통합돌봄 분야를 각각 특성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강원 1도 1국립대 모형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혁신의 선도모형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육부도 통합 강원대가 강원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거점국립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 반도체교 개교·다자녀 동일교 배정 특화인재 키우고, 돌봄부담 줄인다

서울시교육청, 입학전형제도 개편  
서울반도체교 내년 3월 개교 예정  
다자녀·장애학생 형제 동일교 배정

서울에도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생긴다. 아울러 교육감 선발 후 기고에 다자녀(3자녀 이상)와 장애학생 형제·자매·남매 동일교 배정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입학전형 제도가 개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로, 선발 방식에 따라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된다. 전기고는 과학·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등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 후기고는 일반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포함되며 일반고는 교육감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학교장이 각각 학생을 선발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서울반도체교의 신설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서울시교육청

이다. 서울반도체교(전신 휘경공업고등학교)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입학생을 위한 기숙사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실 구축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8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동일교 배정 대상도 확대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은 다자녀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남매다.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 이상 자녀부터 형제·자매·남

매가 재학 중인 학교를 희망할 경우 동일교로 배정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의 형제·자매·남매가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교 배정이 가능해진다. 통학과 돌봄 과정에서 보호자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확대를 통해 대상 가정의 통학·돌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고양시, 단수 없는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인프라 확충

고양시가 기후 위기와 도시 성장에 대비한 물 관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상수도 하수도 전반에 걸친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정적인 급수와 수질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배수지 증설과 노후 송수관로 개량, 하수도 기반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시는 수도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배수지 증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등으로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2,800㎡ 규모의 배수지를 7,2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총

48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4월 공사 입찰을 거쳐 5월 착공이 목표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된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총 6.11km 구간의 개량과 3.08km 복선화 공사를 추진해 관로 내구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에도 단수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상수도 관리 체계 고도화도 이어진다. 지난해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단계를 통해 6개 급수 구역에 블록 시스템 구축과 18.4km 규모의 노후관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2-1단계 사업으로 5개 급수 구역에 대한 추가 정비 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대자 1·2구역 등 8개 지역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화조 폐쇄를 통해 악취 문제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지방대 특성화 등 대학 혁신에 1.4조 투입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발표  
최대 850억 '특성화 인센티브' 신설  
우수대학 지원 확대, 미흡대학 감액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에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신설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해 대학 혁신 성과를 재정지원에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 141개교와 전문대학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8191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5617억원으로 총 1조3808억원 규모다. 여기에 올해 특성화 인센티브가 신설, 포함됐다. 특성화 인센티브는 일반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

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 강점 분야 육성을 지원하고, 특히 지방대학이 지역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오는 8월 15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는 데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일반대학 300억원, 전문대학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과 기반 재정지원은 더 강화된다. 교육부는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실적이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감액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런 'AI 코치' 고도화... 중1까지 확대

서울시, 진로·진학 지원체계 강화

서울시가 서울런에 'AI 진단-미니상담-1대1 심층 상담'으로 이어지는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AI 코치는 고도화하고, 이용 대상은 중1까지 확대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런 회원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 AI 코치'를 고도화하고, AI 분석 결과를 전문 상담교사가 설명하는 '미니 진로·진학 상담'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서울런은 AI 진단부터 미니상담, 맞춤형 1대1 심층 상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턴만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년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중학교 1학년 이상은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진로와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은 학생부 평가와 탐구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는다. 수험생은 수시·정시 합격 예측과 AI 모의 면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06:20 | 해질/18:54

**3월 31일 (화)**  
음력: 2월 13일

수도권 날씨 **10 ~ 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8/20, 동두천 9/21, 가평 7/19, 파주 8/20, 서울 10/21, 양평 11/20, 인천 9/18, 수원 12/20, 용인 12/20, 평택 10/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시진핑, 대만 국민당 주석 내달 방중 초청... 4월 7~12일 본토 방문 예정

▲예멘 후티 참전 현실화...홍해 해상 공급망까지 흔드나 /사진 뉴스시스

▲中 국유 대형은행 3곳 2025년 순익 제자리... "부동산 부진·금리마진 압박"

▲인도 델리 두 번째 '노이다 국제공항' 개항...연간 1200만 명

▲"이스라엘 학전 시도에...파키스탄 '美-이란 중재' 탈선할 수도"

▲트럼프 "30일부터 20척 호르무즈 통과...이란과 만남 잘 진행"